

## 최초의 인간을 향한 문학적 사랑

[서평] 정과리(2020), 『‘한국적 서정’이라는 환(幻)을 좇아서  
— 내가 사랑한 시인들·세번째』, 문학과지성사, 573쪽.

허 윤\*

### 1. 참된 만남을 위한 기나긴 만남

#### 1.1. ‘미래 구축으로서의’ 문학사

‘내가 사랑한 시인들’의 처음과 두번째에 이어지는 책이다.<sup>1)</sup> 처음과 두번째의 사랑은 1970년대 시인들과 저자의 “문학의 뿌리”가 되는 1980년대 시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저자는 1920년대부터 불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한국적 서정’의 계보를 탐구한 결과를 세번째 사랑으로 엮었다.<sup>2)</sup> “국어국문학과로 적을 옮”기며 “한국시의 역사적 이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정과리(2008), 『네안테르탈인의 귀향 — 내가 사랑한 시인들·처음』, 문학과지성사;  
\_\_\_\_\_(2014), 『1980년대 북극꽃들아, 빨고등을 불어라 — 내가 사랑한 시인들·  
두번째』, 문학과지성사.

2) 그 처음의 사랑에 관한 글로 김인환(2008), 「분석의 철학 — 정과리 비평집, 『네안  
테르탈인의 귀향 — 내가 사랑한 시인들·처음』, 『문학과사회』, 21-2, 문학과지성사.

해”를 향한 “통시적 시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의 성과다.<sup>3)</sup>

한국문학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나가며 근대 이후 “예술의 사회적 존재태”를 추적해 나가는 저자의 작업은 표층에서는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를 오간 한국문학사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sup>4)</sup> 그런 동시에 심층에서 그 작업은 저자 자신의 문학적 기원이 되는 1980년대 문학의 “관념적 선취”의 역사를 과거로부터 확인하는 작업, 곧 저자 자신의 문학적 기원의 계보에 관한 실존적 탐색이기도 하다.<sup>5)</sup>

공적이고도 실존적인 겹의 읽기에서 이전 작업에서부터 견지되는 것은 ‘미래 구축으로서의’ 역사관이다. 저자에게 그것은 오랜 시 읽기의 배움에서 온 것으로, 미래를 도모하되 행복을 안일하게 약속하지 않는 역사상의 시적 주체들이 보였던 주관적 의지를 우리 자신의 역사적 의지로 끌어올리려는 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미래 구축으로서의 역사는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행복의 약속 *promesse au bonheur*’이 될 수가 없다. 그리되면 오죽 좋으련만 한갓된 주관적 의지는 그것을 결코 보장하지 못한다. 그 의지와 지혜가 하늘에 닿을 정도라 하더라도 세계의 비전은 이질적인 주관성들의 갈등과 합의와 예측 불가능한 조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결코 거기에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의지가 순전히 무능력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 속의 한 개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행복의 약속이 아니라 삶에 대한 성찰과 도전의 확대이다.<sup>6)</sup>

---

3) 정과리(2020), 「국어국문학과로 적을 옮기고 나서」, 『‘한국적 서정’이라는 환(幻)을 좇아서 — 내가 사랑한 시인들·세번째』, 문학과지성사; 「진달래꽃」이 근대시인 까닭 혹은 몰이해의 늪에서 꺼낸 한국시의 특이점, 같은 책 p. 53. 이하 인용시 제목과 면수 정보만 표기하고자 한다.

4) 「1930년대 황순원 시의 선진성」, p. 176.

5) 「이른바 ‘순수 서정시’가 출현한 사태의 문화사적 의미」, pp. 85-86.

6) 「세상의 풍요에 저항하는 이의 가난의 먼 행로」, p. 511(강조 — 인용자).

안일한 약속으로 귀착되지 않는 시적 주체들의 의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대한 성찰과 도전”의 계기로 받아들이는 이 일련의 과정은 저자로 하여금 그것이 아니라면 글을 쓸 이유마저 사라지게 하고 마는(“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거울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게 무의미해지리라”, 「일본인들의 운동주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pp. 249-250) 글쓰기의 윤리적 보루로 작용한다.

요컨대 시인들에 대한 저자의 세번째 사랑은 시적 주체가 일으키는 수행적 사건과, 그것을 읽음으로써 사건에 참여하는 독자의 행위가 다 함께 부단한 운동으로써 미래를 향해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닌 한 세기의 한국문학사라는 통시적 깊이의 차원으로 연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한국적 서정’이라는 특수한 테마로 지나간 문학을 역사화하는 작업이되 시[예술]와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것 간의 연결망을 바탕으로 미래 역사의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저자의 오랜 문학사관과 글쓰기의 윤리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책의 부제에 쓰인 ‘사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된다. 먼저 그것은 책의 기초가 모더니티라는 조건에 직면한 근대문학 이후에 관한 되돌아봄인 점에서, 한국현대시사의 모든 최초의 인간에 대한 후인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 처음과 두번째 사랑에서부터 유지되는 말인 점에서는 전작과의 연속적 의미 맥락을 형성하는 사적(史的) 부피를 지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 1.2. 세번째 사랑의 대상: 한국현대시사의 모든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간’은 책의 제2부와 3부의 제사(題詞)로 두 차례 인용된 알베르 카뮈 소설의 제목이자 소설의 주제와도 상응하는 이름이다. 카뮈 사후에 발표된 미완성 초고 형태의 소설 『최초의 인간』이 보여주는 중요한 통찰 가운데 하나는 최초의 인간이 아득한 거리 너머의 또

다른 최초의 인간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하는 인간 공동의 운명에 대한 이해와 동질감일 것이다. 일차적으로 소설에서 최초의 인간은 무(無)의 세계로부터 불가해한 삶을 시작한 카뮈 자신과 그의 소설적 분신인 자크 코르므리를 가리키지만, 그의 아버지와 그들의 조상 전부,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지 아니한 가난한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존재의 이름으로도 그것은 확장된다.<sup>7)</sup> 이는 최초의 인간이라는 단수의 이름이, 무(無)의 지점에서 바라보는 자와 그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존재들을 공히 묶어내는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문학사라는 지평 위에서는 누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20년 전 한국문학 연구라는 거대한 “스콜라스티크(scolastique)” 앞에 당도한 최초의 인간인 저자가 ‘한국적 서정’의 원류와 그것으로부터 순행하거나 파행한 최초의 인간들을 바라본다. 저자는 시인 중심의 논의들을 역사화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적 서정’을 둘러싼 다양한 편류의 역사가 스스로 운동하며 새로운 처음의 계기들과 최초의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핀다.

또한 최초의 인간은 ‘한국적 서정’의 논의의 바탕이 되는 모더니티의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과 동형의 것이기도 하다. 최초의 인간이라는 상징이 이 책을 통과하며 세 겹의 의미로 두터워지는 지점이다. 최초의 인간은 세계와의 단절의식을 언표하는 동시에 그러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를 써온 개인들인 시적 주체들을 일괄하여 가리키는 표현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의 자기정체성이 된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 다른 지점에 위치한 최초의 인간들을 결연케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의 동류적 감정이다. 저자는 카뮈의 소설적 분신인 코르므리가 ‘손아래 아버지’에 대하여

7) 김화영(2019), 「가장 오래된 것과 가장 싱싱한 것의 만남」,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최초의 인간』, 열린책들, pp. 371-372(강조 — 인용자).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의 연대를 김소월과 한용운으로부터 경험한다.

(……) 아주 [분명히 기억되는] 수년 동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고통,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단 한 가지 유산인 양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 준 그 고통이 현실 속에 가득 배어 들었으므로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도 더 이상 짓누르는 꿈의 무게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생브리외의 사자와 (하기야 따지고 보면 그 역사 자기가 것처럼 비명에 갈 줄은 생각지 못했으리라) 맺어 주는 하나의 매듭이었으니 (……)<sup>8)</sup>

김소월과 한용운의 위대함과 중요성의 정도가 새삼 애틀이 도드라진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밑바닥에서 쓰리게 관류했을 외로움의 강도도.<sup>9)</sup>

저자는 세계와의 격절감을 견디며 서정적 자아의 자리를 지켜낸 최초의 인간 김소월과 한용운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한국적 서정’이 오늘날의 형태로 안착하게 되는 순행의 역사와 편류의 역사를 동시에 추적하고, 운동주와 김수영에 관한 논의를 중추 삼아 여러 형태의 가난 속에서 “한평생의 불길”을 지켜온 한국현대시사의 최초의 인간들을 배치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을 좇는 일은 최초의 인간이 지니는 함의를 한 차례 더 확장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가령, 저자는 김수영의 “후반기 2년”에 주목함으로써 ‘최초’란 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불지퍼지기도 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으며, “운동주가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는 사실의 의미”를 시와 삶을 최소성의 단위에서부터 일치시키고자 했던 운동주의 구체적인 인간

8)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앞의 책, pp. 92-93.

9) 「‘서정’을 규정하는 이 땅의 희극에 대해서: ‘한국적 문학 장르’ 규정 재고」, p. 79(강조 — 인용자).

상 속에서 구해보기도 한다. 그리고는 덧붙이는 것이다. 김수영의 「풀」은 시인의 “최종적 완성”이 아니라 미학적 회심이 이제 막 시작되던 순간의 “삶의 우연한 종결점”일 뿐이라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물 들고 싶어”하는 자리는 바로 운동주가 살아냈던 구체적인 나날의 삶이라고.<sup>10)</sup>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신과 인간의 언어 사이에 허락된 좁은 “모퉁이의 자리”를 자처하며 가난해지는 시 쓰기를 했던 이의 삶을 통해서도 저자는 최초의 인간에 함의를 더한다.<sup>11)</sup>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한 존재들을 가리킨다.

### 1.3. 움직임이거나 몸부림이거나 빛바랜 자취인 것

‘사랑’의 두 번째 의미, 곧 전작과의 연속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성복의 시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시인들에 대한 두번째 사랑을 책으로 펴내면서 그 사랑이 “정말로 문학적인” 사랑임을 부연한 바 있다. 그것은 “싸움”이나 “미움”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개인의 욕망이나 이해를 초월해 있는 사랑이자, 사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인)들과 “멀어지면서 사랑하는” 사랑이다.

여하튼 부제에 쓰인 ‘사랑’은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아니다. **순전히 문학적인 것도 아니다. 아니 차라리 ‘정말 문학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내가 사랑한 시인들 중에는 나와 지독히 싸운 시(인)도 있고 나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시(인)도 있다. 그러나 싸움도 사랑이고 미움도 사랑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10) 「존재의 열림을 살다 — 김수영」, p. 258; 「김수영의 마지막 회심 — 김수영과 프랑스 문학, 그리고 자코메티적 변모」, p. 287; 「운동주가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는 사실의 의미」, pp. 240-241.

11) 「가난을 구제할 소명을 사랑으로 이끈 시」, p. 570.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제에 쓰인 ‘사랑’이라는 말은 “정 주고 내가 우네”라고 말할 때의 ‘정’과 가장 가까운 뜻이긴 한데, 후자의 어사가 흔히 유발하는 연대감을 나는 가능한 한 멀리 밀치려고 애쓰면서 이 글들을 써왔다. 이성복이 그의 ‘연애시’에서 보여주었듯, 멀어지면서 사랑하는 일의 그 미묘함을 그대는 알랑가 몰라.<sup>12)</sup>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그 사랑은 마치 “모세혈관”처럼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두번째 사랑에 관한 책에서 저자는 그러한 “심사의 밑바닥을 얼핏 비치는 글”을 한 편 수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와 삶의 차원에서 “멀어지면서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한 시인” 이성복에 관한 것이다.

(……) 시인은 홀연 그 어머니[『남해금산』의 ‘어머니’ — 인용자 주]를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에 오히려 멀어져야만 하는 ‘당신’으로 바꾼 세칭 ‘연애시’들을 발표했다(『그 여름의 끝』, 문학과지성사, 1990). (……) 어찌면, 형이 자기 시에서 가르쳐준 대로 형을 그리워할 자리를 내 마음속에 오래 남겨두고 싶어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 내 마음의 풍경 속에서 그의 세월은 언제나 나의 대척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형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 형도 나에게서 대척지의 새벽을 보고 있을까?<sup>13)</sup>

저자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온 이성복과의 미묘한 만남을 통해, 그리고 시집 『남해금산』에서 『그 여름의 끝』에 이르는 시세계의 도정 위에서 ‘문학적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12) 정과리, 「책머리에」,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빨고등을 불어라 — 내가 사랑한 시인들 · 두번째』, p. 12(강조 — 인용자).

13) 정과리, 「그리움의 자리」, 위의 책, pp. 476-479(강조 — 인용자).

대상을 위한 자리를 남겨놓는 사랑이며, 사랑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떠남으로써만 (……) 사랑”하는 사랑이다.<sup>14)</sup> 대상에 귀착하지 않는 부단하고도 적극적인 운동으로서의 사랑인 것이다. 극단적으로 불화라고 말할 수 있을 그 사랑의 양태를 저자는 세 가지로 요약한다.

이어서 상자된 『그 여름의 끝』은 움직이는 정지 형상의 시간적 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참된 만남을 위해서는 거둬 멀어져야만 한다는 명료한 명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명제에 비추어진 시적 형상들은 참된 만남을 향한 움직임 그 자체거나 그 만남의 실패에 직면한 좌절의 몸부림이거나, 그 참된 만남과 상호작용한 모든 움직임들의 가장 빛바랜 자취들, (……) 로서 출현한다. 독자들은 그 흔적을 하나의 단서로 삼아, 가장 기나긴 만남의 도정을 추적해 된다. 그 추적의 과정 또한 참되게 만나기 위해 가장 멀리 에도는 기나긴 굴곡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15)</sup>

세번째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에서 온 것이다. “참된 만남”은 “가장 기나긴 만남의 도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마저 움직임이거나 만남의 실패에 따른 몸부림이거나 움직임의 빛바랜 자취라는 것. 이 ‘문학적 사랑’에 대한 저자의 자기 정리 작업과 나란히 주목되는 것은 세번째 사랑에 와서 한국문학 연구의 장에 저자 자신을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가) (……) 국민의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사상과 경륜이 생기더라도 그가 집권 계급의 사람이 아닌 이상, 또 그것이 사문난적(斯文

14) “이젠 아시겠지요. 왜 내가 자꾸만 당신을 떠나려 하는지를. 사랑의 의무는 사랑의 소실에 다름아니며, 사랑의 습관은 사랑의 모독일 테지요.” 이성복(1986), 『남해금산』(문학과지성사)의 뒤표지.

15)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돌출적인 사건」, p. 379면(강조 — 인용자).



亂賊)이라는 범주 밖에 나지 않는 이상 세상에 발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6)</sup>

(나) 다만 겨우 한 걸음이라도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시능을 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한국문학 연구 연구를 위한 실마리에 한 올을 보태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교정하는 마음으로 연구 대상의 실체에 진지하게 접근하여 쇄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일에서 출발하는 것만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sup>17)</sup>

여기에 오면 ‘문학적 사랑’은 한국문학 연구자로서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된다. (나)에서 보듯 저자는 한국문학의 ‘내부’에서 자신 또한 연구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에 침식되어 왔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반성하며 “나 자신을 교정하는 마음”으로 “다만 한 걸음이라도(……) 울타리를 벗어나는 시능”을 한다고 했다. 이는 (가)에 인용된 김구 선생의 말을 되짚어볼 때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는 범주 밖”의 자리를 자처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깥의 자리여서, 앞서의 ‘문학적 사랑’이 시작되고 지속되는 장소와 펍 닮아 있다. 아주 떠나지는 않은 그 미묘한 바깥의 자리에서 저자는 시의 이론적 전거와도 같은 ‘김영랑의 박용철’ 들을 자신의 읽기의 역사로부터 빈번히 호명하기도 한다. 정명환(한용운론), 김현(「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유종호(김소월론), 김우창(운동주론), 안삼환(박용철론)이 그들이다. 한국문학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위치한 이들은 외국문학 연구자로서 한국문학 읽기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 또 하나의 최초의 인간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sup>18)</sup> 이들과의 관계

16) 「국어국문학과로 적을 옮기고 나서」, p. 9. 저자가 인용한 『백범일지』의 일절이다 (강조 — 인용자).

17) 위의 글 pp. 10-11.

18) 최하림 초기시에 나타난 주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따왔다.

망에 대한 고찰은 별론을 요할 것이다.

#### 1.4. 밑에서부터 전부 읽기와 예증의 방식

시(인)들에 대한 저자의 문학적 사랑은 한국문학의 각 개별태에 대한 접근으로 이어진다. 저자가 귀납 대신 시도한 예증의 방식은 여러 편의 읽기를 통한 요약이 아닌 한 편씩의 읽기를 통해 현상의 이해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공통된 시적 모형을 추출하는 대신 하나의 현상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편류와 이질태들을 발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귀납적 방법을 포기하는 대신 나는 예증적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한국적 서정을 대표한다고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시인의 대표작 한 편을 자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서정을 요약하는 대신 구체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나는 이 방식이 차후에 귀납적 방식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그 자체로서 귀납적 방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귀납적 방식이 하는 일이 한국적 서정의 모형을 추출하는 것이라면, 예증적 방식은 다소간 자의성을 포함할 수 있으나(하나의 사례를 통해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적 서정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섬세하게 분별하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9)</sup>

대상을 그 크기와 무관하게 총체적으로 읽는 방식은 어디에 연원을 두는 것일까. 그 면밀함은 정식으로서는 단 한 번 뵈었기에 되려 또렷이 기억되는 한 분의 시인에게서 배운 것이다.

---

「어느 시인의 매우 오래된 과거의 깜박임 — 최하림 시인의 영전에서」, p. 341.

19) 「한국적 서정의 정신적 작업 — 박재삼의 시 한 편을 예로 들어」, pp. 137-138(강조 — 인용자).

(……) 나는 난생처음 먹어보는 북매운탕의 국물만을 훌쩍거리면서 시인이 신출내기 평론가에게 건네는 한마디 당부부를 듣고 있었다. 그 당부부는 사람에 따라서는 평범한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내게는 마침 어찌 먹을 줄을 몰라 찢찢매고 있던 당처럼 무척 생소하고 신기한 말이었다. “최고의 시인만을 읽지 말고, 무명 시인들의 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당부였고, “그럴 때 비로소 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는 충고였다.

내가 시인의 충고를 진성으로 듣지는 않았던 것 같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시인들이 시집을 보내올 때마다 최하림 선생을 떠올렸고, 그리고 가능한 한 시집에 대한 내 독후감을 적어 엽서로 답장을 보내곤 했다. 당연한 일이겠으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 흐름의 파장은 점점 줄어들어서 나는 이제 답장 보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장년 시절 적어도 20년간을 나는 독후감을 실은 답장을 보내기 위해 시간을 쪼개는 일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의 내게 시에 대한 감식안이란 게 얼마간 있다면, 그걸 형성하는 데 저 답장질이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sup>20)</sup>

한국문학 읽기를 갖 시작한 1980년대의 문턱에서, “무명 시인들의 시”도 “빠짐없이 읽으라는 당부”가 있었다. 대상을 가리지 말고 읽으라는 당부였으므로 엄밀히는 총체적 읽기를 가르친 것이라기보다는 밑에서부터(‘빠짐없이’라는 의미에서의) 전부 읽을 것을 당부한 말로 이해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자는 모든 시인들에 대하여 “독후감을 실은” 엽서 쓰기를 실천에 옮겼으므로 이것은 대상의 크기와 무관히 각각을 전부 읽는 총체적 읽기, 예증의 글쓰기라는 또 다른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정을 줌에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는 ‘문학적 사랑’의 사사롭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그러하므로, “최하림 선생의 영전에서” 돌이켜본 “매우 오래된 과거의 깜박임”이란 습작기와 만년

20) 「어느 시인의 매우 오래된 과거의 깜박임」, pp. 326-327(강조 — 인용자).

의 시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선일 뿐 아니라, 그와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지금까지도 저자에게 명멸하듯 타전해 오는 빛의 은유가 된다.

## 2. ‘한국적 서정’의 편류와 가능성

### 2.1. 세계의 구성적 주체로서의 개인

내부와 외부 사이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며 한국현대시사의 최초의 인간을 동등하게 전부 읽는 ‘문학적 사랑’을 통해 저자가 추적하는 것은 ‘한국적 서정’의 연원과 계보이다. 그리고 그것에 내재한 복류적 성격과 가능성이다. 이에 앞서 저자가 논의의 전제로 삼는 것은 서정(lyricism)의 역사적 조건으로서의 모더니티이다.

서양에서 발원하여 전 세계에 퍼진 삶의 양식, 즉 개인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세계를 구성해나가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삼은 존재 양식을 ‘모더니티’ 혹은 ‘근대’라고 부른다.<sup>21)</sup>

저자는 모더니티를 조건으로 출현한 서구의 서정이 한국으로 습합되는 과정에서의 저항과 수용 혹은 창조와 윤리의 긴장관계에 주목한다. 저자가 모더니티를 특정한 시대 명칭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이 세계구성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 곧 “존재 양식”으로 등치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더니티 = 개인이 세계구성의 주체가 되는 존재 양식’이라는 등식을 통해 저자는 한국에서 서정시가 태동하던 시기에 개인은 어떻게 출현하였으며, 그 세계구성적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21) 「한국적 서정시를 태동시킨 김영랑의 시와 박용철의 시론」, p. 99.

(가) 골드만은 낭만적 세계관을 세계와의 근본적인 불일치라는 말로 정의했다. 그 점에서 골드만이 비극적 세계관을 ‘전부 아니면/ 그리고 무All OR/AND Nothing’로 정의한 것에 비추어, 낭만적 세계관을 ‘무Nothing’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주체가 세계 속에 놓일 자리를 완전히 무화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일치를 표지하는 순간에 주체는 이 세계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sup>22)</sup>

(나) (……) 전체성의 세계가 붕괴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이 붕괴하면서 어떤 새로운 존재가 전자처럼 튀어나왔는데, 바로 ‘개인’이 그것이였다.<sup>23)</sup>

(다) 그러니까 세계와의 근본적인 단절 위에서 개인의 상상세계의 창조의 모험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아주 의식적인 자각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런 의식적인 자각을 보여준 시인들의 수를 적잖이 확보하게 된다.<sup>24)</sup>

저자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서정적 자아에 주목함으로써(나), 골드만의 비극적 세계관에 관한 정의를 보완한 ‘무Nothing&나I’의 도식을 설정하기도 하고(가), 한용운의 시를 통해 비서정적 자아가 세계와 대등한 힘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한다. 두 시인을 통해 한국 현대시사의 서정적 자아의 계보와 비서정적 자아의 계보라는 두 흐름의 역사를 차별화하면서도 이들에게서 공히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구성적 주체라는 개인의 몫이다. 이는 저자가 ‘한국적 서정’의 원류를 탐색하는 작업을 “근대사회에서의 예술의 사회적 존재태”에 관한 모색과 겹쳐놓은 결과로 이해된다.<sup>25)</sup>

22) 「한국 현대시에서 서정성의 확대가 일어나기까지」, p. 35.

23) 「「진달래꽃」이 근대시인 까닭 혹은 몰이해의 늪에서 꺼낸 한국시의 특이점」, p. 62.

24) 「서정」을 규정하는 이 땅의 희극에 대해서: ‘한국적 문학 장르’ 규정 재고, p. 79.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저자는 모더니티라는 조건 하에 출현한 ‘개인’을 단독자와 행위자로 쪼개고 각각의 존재방식을 계기적으로 연결한다. 저자에 따르면 단독자는 세계와의 단절을 “표지하”는 자이며, 행위자는 그러한 단절을 극복하여 다른 세계의 창발을 향한 항구적인 운동을 개시하는 자다. 저자는 단독자에서 행위자로의 연결이 자동사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각”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김소월과 한용운, 그리고 시문학파의 시와 문학적 구상을 통해 입증한다(다).

개인이 세계의 구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인이 세계의 “대리인”(agents)이 아니라 “구성자”(constituents)로서 참여하는 방식의 새로운 공동체의 창안을 의미한다. 개인이 전통적인 질서나 자연에 의탁하여 그 거대한 세계의 일부로 수렴되는 방식이 아니라 단독자로서의 ‘나’의 축을 유지하면서 “다른 세계”를 열어보일 수 있는 항구적인 운동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 ‘나만의 고유한 심사’를 표현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피력하고, 보편적 관념에 저항함으로써 집단 인식의 쇄신과 창조적 사유의 창발을 꾀하는 시들은 일반 교육의 장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한 상태다. (……) 그러한 인식의 쇄신은 서정시가 세계와의 근본적인 단절에서 출발하는 데서 솟아난다. 그 단절을 통해서만이 단독자로서의 ‘자기’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세계 창조, 즉 다른 세계의 창발을 항구적인 운동으로 만드는 길이 열린다.<sup>26)</sup>

근대문학의 핵심이 개인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개인이 공동체의 보편적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신만의 삶을 구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이차적으로는 공동체가 개인을 규

25) 「1930년대 황순원 시의 선진성」, p. 176.

26) 「서정」을 규정하는 이 땅의 희극에 대해서: ‘한국적 문학 장르’ 규정 재고, pp. 77-78(강조 — 인용자).

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새로운 공동체를, 즉 사회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즉 개인은 공동체에 그저 반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은 사회의 구성자로서의 존재를 꿈꾸고 그렇게 활동한다. 따라서 개인의 개인성을 혈연과 지연과 언어 공동체로서의 민족과 떼어서 인지하는 것은 공동체와 격리된 상태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주체적 의지와 지식과 동경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패러다임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그의 대리인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들은 대리인agents이 아니라 구성자constituents이다.<sup>27)</sup>

### 2.3. ‘한국적 서정’의 가능성: 기다림의 시학과 순수노동가치

1920년대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에서 성취된 세계 구성자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이후 시대에 동일한 방식으로 온존한 것은 아니었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의 서정시는 박용철을 이론적 전거로 삼은 “김영랑적인 것”이 우세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에의 동화”로 “현실への 참여”를 대체하는 한국적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후 시문학파가 열어보인 한국적 서정의 지평을 다양한 방식으로 채운 것은 후대 시인들의 의지였다고 할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시문학파가 열어보인 서정의 지평은 신석정과 청록파, 그리고 서정주의 서정으로 귀착되었다.

서정주로 귀착되는 ‘한국적 서정’의 큰 흐름을 제시하면서도 저자가 시선을 거두어 거둬 주목하는 것은 박용철과 김영랑의 기다림의 시학에 겹쳐놓인 한국인의 정신사적 맥락으로서의 “정치적 준비론”이다. 또, 그와 같은 기다림의 운동에 내재된 예술의 존재방식인 순수노동가치이다. 바꾸어 말하면 저자는 ‘한국적 서정’이라는 발원지로에서가 아니라 요령부득의 장면들로부터 예술의 역설적인 가치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27) 「이른바 ‘순수 서정시’가 출현한 사태의 문화사적 의미」, pp. 83-84(강조 — 인용자).

그러하므로, ‘한국적 서정’은 다발적으로 존재해 왔고 무한한 가능성을 내재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하나의 형상이나 이름으로 포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자가 그것을 ‘환(幻)’이라 가리킨 연유를 확인하게 된다. 저자는 ‘한국적 서정’이라는 습관적인 이름에서 스스로 벗어나, ‘한국적 서정’으로부터 편류하는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문화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적 서정을 “넘어서는” 서정시의 가치를 논하기 위한 시도(「한국적 서정의 정신적 작업 — 박재삼의 시한 편을 예로 들어」)를 ‘한국적 서정’에 대한 역사화 작업 바로 다음 순서로 배치한 의도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 봉건과 근대 사이에서 이채롭게 드러나는 이상의 드문 서정시를 배치하고, 황순원 서정시의 이행 과정을 살핌으로써 ‘서정적 = 사회구성적, 심층사회학적’이라는 가치를 발견한 것은, ‘서정적 = 비사회적’이라는 통념을 깨는 것인 동시에 다발적으로 존재하는 ‘한국적 서정’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도라고 할 것이다.

황순원의 이러한 글쓰기는 근대사회에서의 ‘개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한다.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해방된 존재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해방을 통해서, 즉 독립에 근거해서 개인들은 각자의 의지와 상호 간의 토론과 협상과 계약을 통해 ‘사회’를 이루어나간다. 개인적 글쓰기도 마찬가지이다. 글쓰기의 개성은 단독자의 특이함을 표 내는 행위라기보다는, 지배적이 됨으로써 확정적인 것처럼 행사하는 일반적 글쓰기에 저항하여 새로운 글쓰기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자유롭고 해방된 새로운 보편적 글쓰기를 꾸며나가는 실천인 것이다. 개인적 글쓰기는 엄격한 의미에서 (……)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쉽 없이 기도하는 사회적 글쓰기이다.<sup>28)</sup>

28) 「1930년대 황순원 시의 선진성」, pp. 175-176(강조 — 인용자).



‘한국적 서정’의 다발적 존재 양상과 함께 저자가 주목한 것은 시문학파의 예술적 자율성 및 독립성, 그리고 순수한 기다림의 시학에서 발견한 순수노동가치다.

이어서 우리는 자율성→생산성의 방향은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확산되는 방향이며, 자율성→독립성의 방향은 사용가치가 노동가치로 집약되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가치는 오로지 주체의 운동에만 집중함으로써 어떤 교환의 대가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환체제 자체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정하는 것이다. 이 독립성, 즉 순수 노동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우리는 주체의 활동을 자기재생산이 아니라 자기희생을 통한 타자(예술품) 생산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근대적 삶의 일반적 경향, 즉 타인의 희생을 통한 자기증식의 체계를 통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상품과 상품의 관계로 전락하는”(마르크스) 경향에 대한 대항 지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기실 저자가 예술의 존재양식인 순수노동가치를 발견한 것은 연원 깊은 일이다. 일찍이 저자가 1980년대 문학을 통해 익힌 명제가 ‘이해의 초월’이었던 바, 김현 식으로 그것은 문학의 “써먹을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실태와는 별도로, 저 ‘이해의 초월’이라는 명제의 잠재성은 지금 씩 유효한 것이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미학의 핵심적인 원리가 아닌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읽으며, 문학의 ‘써먹을 수 없음’에 대한 김현의 성찰을 통해, 롤랑 바르트가 “노동 가치”를 발견했던 플로베르의 절차탁마에서, ‘승고’에 관한 리오타르의 망설임을 보며, 우리가 깨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문학은, ‘잠

29) 「이른바 ‘순수 서정시’가 출현한 사태의 문화사적 의미」, pp. 88-89.

재'라는 어휘가 그대로 가리키듯이, 그들의 글쓰기의 무의식적 실천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1980년대 문학을 돌이켜본다면, 바로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이다.<sup>30)</sup>

그리하여 저자는 '한국적 서정'의 기원인 1930년대 문학을 1980년대 문학이라는 미래와 마주세우기에 이른다.

반면 근대적 사유의 핵심 원소인 개인에 대한 인식이 생활 수준에서 뿌리내릴 수 있게 된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통한 민주화 이후이다. (……) 다만 근대적 사유와 존재 방식의 도래가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것의 관념적 선취는 근대에 홀린 직후부터 전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념과 체험의 격차 속에서 그 관념은 짧은 주기 속에 명멸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된다. 하지만 그 명멸은 덧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체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차곡차곡 계단을 쌓아가는 일이다. 그 계단은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을 구현하지 못하는 대신, 그것을 가상적인 방식으로 체험케 함으로써, 도래할 사건으로서의 개인을 비실제적 영역에서 실습케 하는 역할을 한다.<sup>31)</sup>

이태준의 『문장강화』를 비롯하여 시문학과에 의해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인지되기 시작한 1930년대 문학의 시도들로부터, 세계구성적 개인의 도래가 가능해진 1980년대 문학을 향한 '명멸하는 빛'을 읽어낸 것이다. 예술의 존재 방식인 순수노동가치를 시 쓰기의 차원에 적용하여 본다면, 최소성에 투여되는 운동주의 시적 노력들은 그의 예술이 다른 아닌 순수노동가치로서 존재함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며,

30) 정과리(2014), 「책머리에」,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빨고등을 불어라 — 내가 사랑한 시인들·두번째』, 문학과지성사, p. 11(강조 — 인용자).

31) 「이른바 '순수 서정시'가 출현한 사태의 문화사적 의미」, pp. 85-86(강조 — 인용자).

그다음 「바람이 불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면, 복이 있기 위해서는 “영원히 슬퍼”야 한다는 논리를 구축한다. 이 형식논리의 놀라운 궤변이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 이어서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사실들(가령,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배부르고 등등)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고 오로지 구원 전의 노동에만 생각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구원의 가능성은 ‘슬퍼하는 일’ 속에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시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운동주는 구원의 몫을 행복한 침잠이나 막연한 기대로부터 꺼내어 인간 그 자신의 나날의 삶에 돌려주었던 것이다.<sup>32)</sup>

“풍요”에 대비되는 “적빈성의 시”를 쓰는 위선환의 시에 오면 “특유의 적빈성을 생의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시적 논리”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실패를 통해 주체가 미래 구축을 위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에 있다.

초월적인 것을 지상적인 것 바탕에 내장시키고 지상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의 목젓 안에 이식시켜 ‘초월적인 것의 지상으로부터의 비상’을 ‘시적 주체가 스스로 수행하는 사건’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상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깥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적 주체의 가난함을 정직하게 확인시키면서도, 그 몸에 거듭되는 비상의 의지와 행동을 점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미 그것을 겪었던 독자가 여기서 새삼 확인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시적 주체의 수행적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며, (……) 삶은 수행적으로만 역사(변화)를 일으키며, 그 변화는 미래를 구축하는 일이라는 뜻이다.<sup>33)</sup>

32) 「운동주가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는 사실의 의미」, pp. 239-240.

33) 「세상의 풍요에 저항하는 이의 가난의 먼 행로」, pp. 509-511.

위선환 시의 주체성으로부터 ‘미래 구축으로서의 역사’를 발견하는 대목은 글의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문학에 대한 저자의 근본적인 신념에 닿아있는 것이다. 책머리의 첫 제사(題詞)가 “미래의 입법자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자크 소설의 한 부분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예견된 모든 현재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에서만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믿음이다. 설혹 그것이 있어도 미래는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미래의 문은 영영 열리지 않을 것이므로.<sup>34)</sup>

### 3. 시 쓰기(읽기)의 이전과 이후

#### 3.1. 시 쓰기의 이전과 이후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시 쓰기(읽기) 이전과 시 쓰기(읽기) 이후가 차이가 없는 것이다.<sup>35)</sup>

“시 쓰기(읽기) 이전과 시 쓰기(읽기)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한 저자의 말에 오래 눈길이 머물렀다. 이를 쓰기과 읽기의 이전과 이후에 관한 물음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시인의 시세계가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살핀 장면을 통해 그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본다.

---

34) “시인의 독백/ (……) “어둠 속에 이 소리마저 없다면”, 진은영(2003),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일곱 개의 단어로 된 사전』, 문학과지성사.

35) 「『진달래꽃』이 근대시인 까닭 혹은 몰이해의 늪에서 꺼낸 한국시의 특이점」, p. 57.

(가) 시는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한다. 시는 교리문답서도 신앙고백서도 아니다. (……) 시는 비극적 인간의 ‘전부 그리고 무’라는 양극단을 하나로 이으려 한다. (……) 시는 정확히 그 연결을 가리키고 있다.<sup>36)</sup>

(나) 한상기 선생의 시는 여기에서 한 단계의 도약을 요구받는다. 진리와 일상의 교통이 첫 단계의 방법적 설정이라면, 이제 그 교통의 실제적인 운행자와 운용 방식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 시인이 마침내 발견한 그 운행자는 다름 아니라 ‘자연’이었다.<sup>37)</sup>

(다) 침묵하는 법, 더 정확히 말해 침묵으로써 말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 방법의 모색에 한상기 선생의 시는 오래 몰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자연의 두 가지 측면, 일상과 진리에 동시에 근접해 있다는 모순적인 성격을 끌고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바로 모순을 끌고 간 시인의 이 억척 자세로부터의 해답이 솟아오른다. 여기서 한상기 선생의 시는 세 번째 도약을 이룬다. (……) 진리와 세속을 서로의 거울로 이해함으로써 신의 말씀과 이웃의 말을 동시에 경청하는 것이 그 대답이었던 것이다.<sup>38)</sup>

저자는 그 대답을 단계론적으로 제시한다. 한상기의 시는 진리와 일상 사이에서 “진리를 등불 삼아 일상의 삶 하나하나를 깨달음의 모루 위에 놓”음으로써 “미어”(美語)의 수준을 지나고(가), 신의 언어를 닮은 침묵의 언어인 자연의 말로 진리와 일상을 매개하려 한다(나). 마침내 시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임을 각성한다(다). 천상에 진리의 뭉을 정신적으로 할당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두 세계의 진리를 “동시에 경청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모퉁이의 자리”에서나 가능하며, 그러한 자리

36) 「가난을 구제할 소명을 사랑으로 이끈 시」, p. 559.

37) 위의 글 p. 564.

38) 위의 글 pp. 566-569.

에 위치할 수 있음,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시의 힘”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가 시인의 단계론적 깨달음이 가난을 구제한 일보다 더 크게 올려온다고 말한 까닭은 그의 시가 ‘가난해지면서’ 가난을 구제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제5부의 편제명이기도 한 ‘한평생의 불길’은, 더 많이 가지고 가르치려는 자리마저 태울 수 있음을 아는 이의 기나긴 불길이었음이 가장 마지막 번째에 수록된 글을 통해 확인된다. 시를 쓰면서 스스로를 가난해지는 자리에 위치시킨 시인의 사례는 시 쓰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성찰하게 한다.

### 3.2. 시를 읽는 이유

쓰기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하는 시를 읽은 독자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혹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저자는 한국적 서정을 분석하는 목적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함이라는 점을 책의 곳곳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한국적 서정을 분석하는 것은 모든 삶의 양상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그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구조를 통해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분별하고, **보다 나은 미적 감정 및 형상 그리고 윤리적 태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분석은 근본적으로 확인적constative인 것이 아니라 수행적performative인 것이다. 분석은 그 자체로서 실천이다.**<sup>39)</sup>

읽고 분석하는 일은 곧 “보다 나은 미적 감정 및 형상”과 “윤리적 태도”를 향해 나아가는 “실천”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읽는다는 것은

39) 「한국적 서정의 정신적 작업」, p. 138.

자기 존재의 자리바꿈을 내거는 일인 것이다. “일본인들의 운동주 사랑”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현상이다. 운동주를 읽는다는 것이 일본인들에게는 “참회와 자기보존을 동시에 구하”는 일과 연결되는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진화적 본능에 논리적 근거를 부여하려는 얼마나 힘겨운 노력을 벌이고 있는가에 대해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들의 이 행동을 자기합리화로 단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 논리적 구축의 뒤에 한결같이 그들의 앞 세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인지와 논지의 병존을 통해서 그들은 참회와 자기보존을 동시에 구하고자 했으며 더 나아가 인류의 공동 운명에 대한 진지한 숙고에까지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거울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게 무의미해지리라.<sup>40)</sup>

친일 논란의 시(인)을 추념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기억한다는 것은 추념의 대상으로부터 “잘못”과 “지혜”를 분별하여 기억하는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찰성에 대한 강조는 저자가 문학의 가능성을 언제나 읽는 이의 자기갱신의 의지와 미래의 시점으로부터 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선인을 기념하는 행위는 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대 사람을 위해서다. 즉, 후대인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동시에 선인을 따르면서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이다. (……) 우리는 그것[“상황 논리가 있지만 어쨌든 협력했다는 사실 자체” — 인용자 주]을

40) 「일본인들의 운동주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pp. 249-250.

기억해야 하며,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각에서 강요된 협력의 잘못된 점들을 짚어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협력 속에 숨겨진 은밀한 반항과 극복 의지를 볼 지피고자 한 노력 역시 챙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줄도 알아야 한다. (……) 그를 위해서도 아니며, 우리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sup>41)</sup>

필자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기망(企望)조차 어려운 물음이 시를 읽는 일과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저자로부터 배운다. 시 읽기란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전언, 이는 오래 전 ‘부지(不知)’의 사태에서 맹자가 시와 서를 차례대로 읽거나 순서를 정한 일[序詩書]이 『맹자』를 예비하는 사건이었던 것과, 겨울밤 유배지의 정약용이 몇 줄의 시를 차례대로 읽었던 풍경에 더하여 시 읽기를 삶의 문제와 더욱 가까운 자리로 끌어당겨볼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준다.<sup>42)</sup>

시를 보는 감식안이 갖추어진다면 그 눈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었으면 한다. 젊은 날의 저자가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저자로부터 필자는 모든 글자들을 똑같이 대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 부족한 글을 준비하던 여름날, 그러한 가르침을 준 또 다른 존재는 모든 대상을 똑같이 대하지 않았음이 자기를 살아오게 하는 것이었음을 고통스럽게 자각한 소설 속의 인물이기도 했다.<sup>43)</sup> 필자의 앞으로 도착하게 될 그 모든 문학의 전언들에 대하

41) 「청마 시에 대한 친일 시비 유감」, pp. 549-550(강조 — 인용자).

42) 주희(朱熹), 「孟子序說」, 『孟子集註』; 정일근(1991),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 빛남.

43) 권여선(2014), 「이모」, 『안녕 주정뱅이』, 창비.



여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들을 읽으며 ‘독후감을 실은 엽서’를 부치려고 노력할 때,<sup>44)</sup> 그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이 동질한 것이 될 때, 쉽게 읽거나 살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리라는 믿음을 품어본다.

---

44) 앞의 소설 p. 84; 「어느 시인의 매우 오래된 과거의 깜박임 — 최하림 시인의 영전에서」, p. 327.

